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4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5060호 2022년 11월 9일 수요일

[라이프]
식품기업
소재개발
역량 집중
L1

매일 아침 내 손 안의 친구
메트로 창간 20년
노인일자리 만들기와
정보나눔의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metro

2022 반도체포럼

글로벌 혁신의 주역 K-반도체
초격차를 넘어 상생의 생태계로

위기 빠진 K-반도체, '상생' 키워드로 대응방안 찾는다

美·中 맹추격에 '초격차' 지키기 어려워져
발 묶인 '반도체 특별법' 등 정부 지원 부족
글로벌 반도체 전망, 경쟁력 방안 등 모색

K-반도체 위기론이 커지고 있다. 4차산업혁명에 이어 코로나19로 반도체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정부가 앞다퉈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선 탓이다.

메모리 '초격차'를 지키기도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미세 공정 난이도가 크게 올라가면서 업계 기술 차이가 대폭 줄어든 가운데, 미국이 잇따라 '세계 최초' 양산에 나서며 시장 리더십을 넘보기 시작했다. 미국 무역 제재로 주춤했던 중국도 틈새를 공략하며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섰다.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전략도 좀처럼 힘을 얻지 못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비전 2030'로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을 선점하는데 성공했지만, 미국과 대만 등 정부 지원이 본격화하면서 전폭적인 투자로 추격을 뿌리치고 있다.

팹리스 산업 역시 여전히 그렇다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 1%에 불과한 글로벌 점유율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반도체 산업 뿌리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역시 아직까지 그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은 현실화되지 못하는 분위기다. 미국과 유럽이 발빠르게 반도체 지원법을 마련하면서 천문학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사이, 우리나라 정부는 반도체 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한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반도체 특별법'조차 수개월 동안 방치하고 있다.

이에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은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KRX 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글로벌 혁신의 주역, K반도체 초격차를 넘어 상생의 생태계로'를 주제로 반도체 포럼을 개최한다. 한국거래소(KRX), 금융투자협회, 코스닥협회, 한국팹리스산업협회가 후원했다.

이날 포럼은 반도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양향자 국회의원과 홍순욱 KRX 부이사장 축사로 문을 연다.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가 개회사를 맡았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석학 교수가 포럼 주제와 같은 이름으로 기조강연을 맡았다. 박 교수는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을 겸임하며 국내 반도체 산업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어서 왕성호 한국팹리스산업협회 대외협력위원장이 '팹리스 산업의 중요성·필요한 정책과 지원 방향'으로 강연을 이어간다. 왕 위원장은 네메시스 대표이사로 국내 팹리스 산업 현장을 생생한 목소리로 들려줄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이 '반도체 현황과 전망, 그리고 공급망 이슈 점검'을 주제로 반도체 산업 현황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조은교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미중 반도체 경쟁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반도체 산업 글로벌 정세에 관해 소개할 예정이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2022 반도체 포럼 프로그램

시간	구분	프로그램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40~14:00
14:00~14:20	축 사	**양향자** 국회의원 **홍순욱** 한국거래소(KRX) 부이사장
	개 회 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14:20~15:00	기조강연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 글로벌 혁신의 주역 K-반도체, 초격차를 넘어 상생의 생태계로
15:00~15:40	강 연	**왕성호** 한국팹리스산업협회 대외협력위원장 : 팹리스 산업 중요성과 제도적 육성 방안
15:40~16:20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 반도체 현황과 전망, 그리고 공급망 이슈 점검
16:20~17:00		**조은교**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미중 반도체 경쟁과 우리의 대응

박 재 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석학교수

박재근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석학교수는 '글로벌 혁신의 주역 K-반도체:초격차를 넘어 상생의 생태계로'를 주제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현재와 문제점을 분석하는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박 석학교수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미국이 대중국 무역 제재와 함께 반도체 증진법을 시행하면서 격변하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 분위기를 먼저 소개할 예정이다.이어서 경쟁 국가들과 비교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정책 현실과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 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투자를 늘리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 방안도 제시한다.

아울러 위기 속에서도 규제 완화와 함께 투자 여건을 조성하면 소부장 산업 등 새로운 분야를 육성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전한다.

왕 성 호
한국팹리스산업협회 대외협력위원장

왕성호 한국팹리스산업협회 대외협력위원장은 '팹리스 산업의 중요성·필요한 정책과 지원 방향'을 주제로 첫번째 강연을 맡았다.

왕 위원장은 한국 반도체 산업 역사를 돌아보고,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패권 경쟁이 시작됐다고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한다.

또 한국 반도체 산업이 경제를 지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메모리에 편중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시스템 반도체, 그 중에서도 팹리스를 육성하는 게 시급한 과제임을 설명한다.

이어서 국내 시스템 반도체 밸류 체인과 팹리스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고, 팹리스 산업을 발전시키고 글로벌로 진출시키기 위해 필요한 민관 차원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승 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반도체 현황과 전망, 그리고 공급망 이슈'라는 주제로 강연을 맡았다.

이 센터장은 반도체 산업이 세계 경제보다 빠르게 성장하면서 앞으로 중요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여러 악재 속에서 한동안 시장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는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메모리를 중심으로한 산업 구조 때문에 큰 손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 센터장은 반도체 산업 구조를 재편해야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육성하고 밸류체인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강화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는 상황, 우리나라도 성장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각도로 대응책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조 은 교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은교 산업연구원 해외산업실 부연구위원은 '미·중 반도체 경쟁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이번 포럼을 마무리하는 강연을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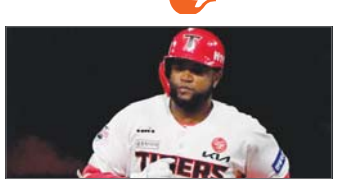
조 위원은 미국의 중국 반도체 제재와 관련해 현상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향후 전망과 우리의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조 위원은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 인수를 시도하는 등 오랜 시간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고 시도했지만, 미국이 다양한 제재를 펼치면서 '반도체 굴기'를 늦추게 된 사례를 자세하게 소개한다.

이어서 앞으로 국제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변할지 시나리오별로 고민해보고, 일본과 대만, EU 등 주요 반도체 산업 국가들이 어떤 전략을 취할지 추측해본다.

아울러 국내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대응할지 분석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버스티비 야구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KIA,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와 재계약…총액 110만달러 /사진 뉴시스

▲"손흥민 앉아만 있어도 큰 힘"…월드컵 명단 포함될 듯

▲LG, 투수 차우찬과 결별…이상호·김호은도 방출

▲축구선수 황희찬, 고향사랑 부천시에 5000만원 기부

▲손흥민 공백 속 정우영·이강인 상승세…공격진 경쟁 치열 /사진 뉴시스

▲세계태권도선수권,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멕시코서 개최